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이영자 총재 영도제단 초청 예배

“영도제단 신도들은 강한 연단을 이기고 선 구세주의 후보자들이다”



이영자 총재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영도제단 신도들

영도승리제단(손찬식 책임승사)은 3월 15일 이영자 총재를 초청하여 예배를 보았다. 봄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이때 영도제단에 모인 신도들은 영생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렁찬 준비찬송소리로 이 총재의 방도를 맞이하는 신도들 하나하나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만발해 있었다.

구세주 조희성 선생께서는 비디오 설교를 통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는 종교가 참 종교입니다”라며 선한 마음, 영생의 마음이 생기게 하는 승리제단 진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연단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라며 인내의 중요성을 또 일깨워 주었다.

이어서 2부 순서에는 영도대교 개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시청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순서는 이영자 총재의 말씀이었다. 이 총재는 신도들을 향해 “누구든지 내 몸처럼”을 외치며 말씀을 시작하였다. “사람 팔자(八字)를 펼쳐 일자(一字)로 늘어뜨리는 팔자 고친 하나님의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다”라며 구세주가 구원하고자 하는 세상이 하나님들이 사는 세상임을 재확인하며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잘했다면서 그 이유는 최근 구세주의 강한 힘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종현 기자

이 총재 말씀 요약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 움직이 승리제단의 이긴 구세주의 강한 진리의 자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끌려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동계올림픽의 영웅은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Victor) 안과 김연아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이다. 빅토르(Victor)는 이긴자를 말한다.

주님은 고르바초프를 들어 공산주의를 없앴다. 고르바초프도 러시아인이다. 구세주와 러시아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궁금하여 러시아의 한 자 이름을 알아보니 이슬 로(露), 서녘 서(西), 버금 아(亞) 즉 러시아(露西亞)였다. 이는 감로이슬+금운+백십자=이긴자 구세주를 뜻한다. 참 신기하다.

최근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스토리는 우리 승리제단 신도들의 마음의 투쟁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천 년 전 하나님께서 마귀 신에게 점령당한 순간 에덴동산은 마귀가 주관하는 겨울왕국으로 변했다. 그래서 마귀 신의 주술에 걸린 하나님은 6천 년 동안 자존심의 포로가 되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싸늘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희생적인 사랑으로 결국 겨울왕국은 따뜻한 세계로 변하게 만든다. 이 영화는 관객들의 양심에 희생적인

사람이 겨울왕국을 따뜻한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것을 심어주었다.

주님은 지난 6천 년 동안 인간 세상을 지배해 온 무지의 신 자존심 마귀를 이기고 전지전능의 지혜와 능력을 회복하신 분이요. 무소부재하신 이기신 하나님의 신은 승리제단 식구들 뿐만 아니라 승리제단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자신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가는 가장 인기 있는 분야를 이용해서 그 자존심 마귀의 약점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당신의 마음씨를 분신으로 심어주고 계신다.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은 승리제단 신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요. 그래서 주님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신도님들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큰 역할을 단 일 초도 쉬지 않고 당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점령한 고지에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는 병사는 보병이다. 승리제단의 천지공사 역시 그 마무리는 결국 여러분들이 하 시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세계 만민들이 물려올 때에 그 모든 영광을 마지막 마무리의 순간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제단을 끝까지 수호하신 승리제단 신도들의 몫으로 돌린 다고.*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31)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리시켜야 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무섭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섭다는 것은 마귀하고 자신의 생명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빨리 자기 생명과 떼어놓아야 합니다.

마귀의 영은 마귀의 피, 하나님의 신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피가 되는 데, 하나님의 피와 마귀의 피가 섞여 있지 않고 분리된 상태라야 마귀의 영을 뿌리째 뽑아서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요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섞여 있는 가운데는 마귀 영을 제거하려다가 하나님의 영마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리시키는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였습니

다. 나라고 하는 영이 마귀 영인 고로 나라고 하는 영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는 마귀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섞여 있는 상태요 하늘의 사람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면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되는 고로 그 마귀의 영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조종대로 움직이지 않는 연단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시간시간 형태 사정이 내 사정이요 형제 잘못이 내 잘못이요 형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나라는 것을 의식하려야 의식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그 생각이 돌아갈 때에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합시다!

미륵불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데

신라시대 유명한 고승 진표율사는 미륵불을 친견한 스님이다. 스님은 출가하기 전 어린 시절 개구리를 잡아 산 채로 나무꼬챙이에 꽂아 놓은 것이 1년 후에 그 자리에 가보니 살아 있는 것을 보고 함부로 생명을 괴롭혔다는 죄책감에 12세 때 출가하였다.

그 후 27세 때에 부사의방(不思議房)이라는 절벽 위 3평 수행처에서 미륵불을 친견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수도(修道)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년을 열심히 수행하면 미륵불을 친견할 것이라는 스승의 말을 따라 그곳에서 도를 닦았지만 미륵불을 만나보지 못하자 자신의 몸을 톨로 치며 참회하는 망신참법(亡身懺法)을 하였다. 3일이 되니 손과 팔이 끊어지고 7일째는 무릎과 어깨가 부서지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생명을 내건 수행을 하니 드디어 21일 만에 미륵불을 친견하였다고 한다.

『열반경』에 맹귀우목(盲龜遇木)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눈 먼 거북이가 어

는 바다 가운데 사는데 그 눈 먼 거북이는 백 년마다 한 번씩 물 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물 위에는 구멍 하나만 뚫린 나무가 물결을 따라 떠다닌다고 한다. 마침 눈 먼 거북이가 물 위에 올라올 때에, 그 나무가 거북의 머리 위에 오게 되어 그 구멍으로 머리를 들어 밀고 나무 위에 올라왔는 것을 말하는 이야기이다. 불법(佛法)을 만나기가 눈 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아주 어렵다는 것이다(동국역경원).

그럼에도 우리는 미륵불을 생전에 만나 보았고, 미륵불로부터 영생(永生)의 대도(大道)를 배운 지극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미륵불은 생사를 초월한 존재로서 보광신지 지금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만나 보을 수 있다. 다만 지금 미륵불을 친견하려면 진표율사처럼 철저한 참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애를 쓰고 기를 쓰지 않고서는 만나 볼 수 없는 때이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이 외계에 있다는 것은 비 성경적 논리”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많으나 일반 종교인들과 무신자들은 천국이나 극락이 현재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나타났다(한국기독교신문 2005.6.11). 물론 약 10년 전 실시한 여론조사이지만 지금도 이와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과연 천국과 극락은 존재하며 사람이 죽으면 그곳으로 가는 것일까? 승리제단 전도부 안명숙 승사는 천국과

극락은 외계에 없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임사(臨死)체험자들의 간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천국을 다녀왔다는 여행기를 출판하여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육체를 이탈하여 천상의 빛과 천사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자의 피의 작용일 뿐이에요. 자기가 상상했거나 교육받았던 지식이 피에 축적되었다가 어떤 계기로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죠. 꿈속에서 실재라고 느끼는 것이 꿈을 깨고 나서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임사체험은 꿈과 동일한 피의 작용일 뿐이에요”*

겨울왕국

서로가 최고의 친구였던 자매 ‘엘사’와 ‘안나’. 하지만 언니 ‘엘사’에게는 하나뿐인 동생에게조차 말할 못할 비밀이 있다. 모든 것을 알려 버리는 신비로운 힘이 바로 그것. ‘엘사’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힘이 두려워 왕국을 떠난다. ‘엘사’가 떠나자 왕국은 폭풍 얼어버리고, 얼어버린 왕국의 저주를 풀기 위해 ‘안나’는 언니를 찾아 환상적인 여정을 떠난다.

우여곡절 끝에 언니를 만났지만 언니는 끝내 왕국으로 돌아오길 거부하다가 동생 ‘안나’는 언니로부터 얼음의 저주를 받아 몸이 점점 얼어 죽어 가게 된다.

한편 ‘엘사’와 ‘안나’가 떠난 왕국은 새 왕을 세우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여왕인 ‘엘사’가 제거되어야 하므로 그녀를 찾아 결국 칼로 목을 치려는 순간, 동생 ‘안나’는 얼음의 몸이 되어가면서 손으로 그 칼을 막고 결국 얼어 죽는다.

그때 언니 ‘엘사’는 동생의 희생으로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보고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동생에 대한 형제애를 느끼자 얼음왕국은 기나긴 흑암을 끝내고 녹아버리기 시작한다.*

죽음이 없는 세상이 이제 그대로 이. 승리제단은 사람의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찾았다.

오/늘/의/말/씀 실시간 예배

승리신문 (4887) 월 2회 발행되는 승리제단의 신문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잊어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안녕들 하십니까?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는 삶. 희망은 있기는 한가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책은 있기는 한가요?

테러와 전쟁, 기상이변, 온난화, 방사능 오염, 대기오염, 미세먼지,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과연 우리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구할 슈퍼스타는 없는 건가요?

그대는 승리제단에서 신비의 새 학문 영생학(永生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천지개벽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로 관통하는 새로운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래 세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세주, 정도령, 미륵불이 누구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승리제단(victor.or.kr)에서 해결됩니다